

공천헌금 처벌...50배 과태료 완화

■법무부 선거법 개정의견 주요 내용

법무부가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터져나오는 공천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1일 공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은 크게 ▲공천헌금 처벌 근거 마련 ▲기초의원·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선거정보의 금전수수 행위 처벌 등이다.

촌로(村老)들이 후보자에게 설명할 때 그릇 씩 얹어먹고 수심만 얻어내며 가혹한 처벌이란 지적을 받아온 '50배 과태료'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공천비리는 곧 폐기행위=현행 선거법에는 공천헌금을 주고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명백한 공천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선거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아도 선거법이 아닌 형법(배임수재)이나 정치자금법으로 예들러 처벌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때문에 정당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및 지시·권유·요구·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법 개정에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자체를 없애기로 한 것은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돼 온 게 사실. 법무부는 이에 기초의원들을 정당공천 대상에서 제외하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생하는 매관매직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배를 완화·고기산물 철퇴=후보자 측에서 음식물과 물품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

■법무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현행	개정의견
진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만 후보자 당선 무효	후보자의 진계 존 비속 및 배우자 외에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범죄주체 확대
공무원 당내 경선운동금지	당내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50배 과태료	과태료를 50배 이하로 하고 주례행위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하향. 저수지 감면 규정 신설
기초의원 정당 추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헌금을 받아 형사처벌되는 피의자의 벌금형이 가장 많아야 500만원인 데 반해 과태료는 최고 5천만원까지 물릴 수 있어서 벌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를 '50배 이하'로 완화하고 주례행위의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낮추고, 저수지에게 과태료를 낮춰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반해 고가의 물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범 의원의 경우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희망자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모피코트와 고급양주, 핸드백 등 1천400여만 원 상당의 고가품 8종을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인·장모·시부모도 '조실'=법무부는 당선 무효형 친족 범위를 '후보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의 장인·장모나 시부모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자칫 당선 무효처리될 수 있다. /연합뉴스

김희장 차남 친구 '보복 폭행' 진술 할까

■ 김승연 회장 압수수색과 수사 전망

후대전화 위치 추적 등 물증 확보 노력 수사 시기 놓쳐 증거 확보 쉽지 않을 듯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1일 김 회장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부족한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 진술과 모호한 정황증거 외에는 물증이나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

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약 50일이 지난 상황에서 대다수 압수수색 추진 사실이 미리 알려져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의외의 단서를 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의 기대다.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은 사실상 '피해

자측'과 '가해자측'뿐이고 '제3자'가 없어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증거 부족'이라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관련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사건 당일 동선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동의를 받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김 회장의 아들이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폭행을 당할 때부터 사건 현장에 계속 같이 있었던 친구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A씨가 완전히 제3자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조사받은 한화측 참고인들보다는 김 회장 일가의 영향을 덜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좀 더 높기 때문이다.

만일 강력한 물증이 확보되거나 A씨의 진술로부터 단서가 나올 경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곧바로 가능해지고 수사 속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정보를 입수한 초기에 수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물증이 흩어져 사라지거나 은닉됐을 수 있고 관련자들이 입을 맞춘을 가능성도 높아 적절히 물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증거 확보 노력이 '뒷북치기'로 그치면서 사건의 본질은 '비교적 단순한 '폭행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게다가 김 회장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화그룹 홍보실 관계자가 이날 기자회견에 "오후 3시 납대문에서 압수수색을 나온다는 말을 법무팀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고 말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피의자와 '사전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경찰은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가회동 김승연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 남대문경찰서 강대원 수사과장이 지택 앞에서 압수수색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희장, 검찰 출신 대규모 변호인단 꾸려

'재벌 총수 사법처리' 검·경과 정면대결 관심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가운데 '재벌 총수 사법처리'를 놓고 검찰·경찰과 변호인단이 벌일 정면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며 영장 신청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고, 김 회장 측은 한화 법무실을 중심으로 김앤장 등 외부 로펌 변호사가 합류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반대의 대비에 나섰다.

우선 경찰은 서울 납대문서가 진행된 초기 수사가 '재벌 눈치보기', '부

실·은계' 논란에 휩싸이자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키로 하고 수사팀을 확대해 전면수사에 나선 상태다. 수사팀이 4개팀(24명)에 이르고 서울경찰청 형사과와 광역수사대 수사인력 20명도 투입해 사실상 '특별수사본부'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의 명예를 걸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서법정(사시 28회) 부장검사 이끄는 형사8부가 수사를 지휘 중이며, 송규중(사시 36회) 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았다. 구속 및 기소 가능성과 재판까지 염두에 둔 한화 측의 변호인단도 막강한

진용을 갖췄다. 한화그룹은 법무실 변호사 10명에 외부 변호사 3명도 합류시켜 13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내부에서는 부사장급 채정석 법무실장(사시 23회)을 비롯해 범원 출신인 김태웅(사시 29회) 상무, 검찰 출신인 정상식(사시 35회) 상무 등 10명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채 실장은 법무부 검찰1과, 서울지검을 거쳐 1996년 여주지검장 시절 '아가통산 사건'을 수사했던 실력과 검사 출신이다.

'외부 수혈'한 변호사들의 면면도 눈길을 끈다. 외부 변호사 3명 중 2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오세현(48·사시 24회) 변호사와 조준형(47·사시 29회) 변호사. 둘 다 검찰 출신이다. 오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대통령 비서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03~2004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을 지낸 '공안통'이다. 조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1과, 서울지검을 거쳐 김앤장에 들어간 뒤 2002년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맡아 검찰 수사시 역량을 발휘했다.

이미 김 회장의 변호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신문조서 편구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나섰다.

사법처리까 목표인 경찰 등 수사기관과 '구속만은 피하고 보자'는 변호인들의 대결은 영장 신청을 시작으로 불붙어 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참과 방패'의 치열한 버리 공방을 연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盧대통령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악질 범죄"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법무부가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실태와 대책에 대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보고 내용은 법무부가 국민들에게 보고드리 주시기 바란다"고 실태 자료 공개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법무부 보고 내용에는 지방선거 공천비리의 유형별, 정당별, 지역별 실태 분석과 함께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도 포함돼 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전날 폐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논란으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천헌금은 매관매직"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가 지금 과업 상태에 들어가 있다"며 "하나라간의 사학법 연계 전락은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 과업정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을 국정브리핑에 게재해서 국민한테 고발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

(주)조이트래블

www.joy-travel.net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 전화 (062) 234-3222

기억에 오래도록 간직될 가슴 설레이는 여행...
매년 1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조이트래블 을 통해 여행을 다녀오십니다.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PANSTAR CRUISE FERRY

오사카/나라/교토

4박 5일

469,000

출발일: 6월 7일
숙박: 특급온천호텔 또는 특급호텔급

▶ 포함 사항: 헬리콥터 승선권, 입장료의 입장료 및 식사, 국내왕복수송, 여행자보험(1억원), 기사&가이드팀
▶ 불포함 사항: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휴게소 식사
▶ 상품 특 전: 노담, 노담선, 출국세 및 각종 부대비용 포함

일본

추천상품1

오감만족! 국내 최저가 일본 큐슈 순천 4일

279,000

- 출발일: 6월 3일
- 숙박: 야마나미 료나루 료나루
- 전일정 노담/노담선/광주 출·도착 기준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2

통나무 콘도와 일본 전통 온천호텔과의 만남 4일

299,000

- 출발일: 6월 1, 7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벳부전통온천호텔
- 노담선/광주 출·도착 기준 / 가이드 팀 별도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3

일본 전통 온천호텔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 4일

349,000

- 출발일: 6월 3일
- 숙박: 온천호텔 또는 특급호텔급
- 전일정 노담/노담선/광주 출·도착 기준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4

팬스타와 함께하는 오사카/나라/교토 5일

469,000

- 출발일: 6월 7일
- 숙박: 특급온천호텔 또는 특급호텔급

추천상품5

항공+초특급호텔 오사카/나라/교토 KE 4일

699,000

- 출발일: 6월 14일
- 숙박: 전일정 특급호텔
- 상품 특 전: 유료 관광지 다수 입장 / 노담, 노담선
- 전일정 차별화된 식사 및 숙박
- 부산출발(국내 수송 별도, 15인 이상 전용 차량 운행)

광주에서 출발하는

장사(장가계) 전세기 직항

"人生不到張家界 百歲豈能稱老翁?"

5월 17일 ~ 8월 30일
목요일(3박4일) · 일요일(4박5일)

목요일(3박4일)	일요일(4박5일)
실속 590,000~570,000	650,000~630,000
풍경 650,000~620,000	690,000~660,000
골프 790,000~770,000 (36H)	840,000~820,000 (54H)
관광 + 골프 (36홀)	790,000~770,000

▶ 포함 사항: 항공료, 호텔(2인실), 식사, 차량, 가이드, 현지 관광지 입장료, 광주 출·공황세, 1억원 여행자보험, 전일정 차별화된 식사 및 숙박, 현지 공항세

▶ 불포함 사항: 여권, 단체 비자 발급비(W18,000), 가이드&기사 팀

중국

특키지1 (광주출발)	상해/소주/항주/주가가	KE 4일
399,000	5월 16, 30일	
특키지2 (광주출발)	상해/항주/장가계(원가계)	KE 5일
859,000	5월 19, 26일	
특키지3 (광주출발)	실양/백두산/도문	CZ 4일
729,000	5월 18, 25일	
특키지4 (광주출발)	실양/백두산/도문/단둥	CZ 5일
779,000	5월 21, 28일	
특키지5 (광주출발)	성도/구채구/황룡/낙산	CA 5일
1,049,000	5월 7일	

동남아

특키지1	홍콩/마카오/심천	NX 4일
499,000	5월 21일	
특키지2 (특급호텔)	방콕/파타야	OZ 5일
479,000	5월 9, 18, 25, 30일	
특키지3	싱가포르/비탈/조호바루	KE 5일
449,000	5월 17, 28일	
특키지4	미닐라/박상합포/히든밸리(은천호)	PR 5일
479,000	5월 16일	

유럽

특키지1 (광주출발)	파리/로마/베네치아/아름다운 유럽	LH 12일
3,090,000	5월 29일	
특키지2 (광주출발)	파리/로마/베네치아/아름다운 유럽	LH 10일
3,690,000	5월 22일	
특키지3 (광주출발)	파리/로마/베네치아/아름다운 유럽	LH 9일
2,790,000	5월 21일	
특키지4 (광주출발)	파리/로마/베네치아/아름다운 유럽	KE 9일
2,490,000	5월 19일	

추천상품(광주출발)

서울/동유럽 5개국	JL 16일
3,390,000	5월 26일
전일정 노담/노담선	

독일·스위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체코

남태평양

특키지1	시디시 완전일주	OF 6일
990,000	5월 10, 17, 24, 31일	
특키지2 (특급호텔)	호주/뉴질랜드 남북서(1급호텔)	OZ 13일
1,290,000	5월 21일	
특키지3 (추천상품)	피지/호주/뉴질랜드 남북서(1급호텔)	KE 13일
1,790,000	5월 22일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적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여행권: 여행 보증보험 가입 / 여행권 계약금 포함 *교통권: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부터 기점(해운항)까지, 국내선항공료, 관광진흥세,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권: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차 *경비: 여행 (단, 개인인원, 선책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발행인원 15명